

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함께 실천하는 민주주의

- 법무부, 제78회 제헌절 맞아 '법페스티벌' 개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에서 18일 대전·부산·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솔로몬로파크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로 헌법과 기본권, 모의국회, 모의법정, 과학수사 등을 체험하는 「법체험관」, 아동의 안전·배려 및 규칙 준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법놀이터」로 구성
- ▶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해 '법체험 해설, 청소년·성인법교육, 법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이번 행사에는 총 17,649명의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이 참여하여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행사장에서는 ▲ 모의헌법재판 체험 ▲ 헌법 도전 골든벨 ▲ 헌법 달력 그리기 및 제헌절 표어 만들기 공모전 ▲ 법률 전문가 토크콘서트 ▲ 헌법 바스켓·가정헌법 마그넷 만들기 등 체험 부스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체험활동을 통해 법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책임을 함께 실천하는 민주시민의 자세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본권 야호! 침해당한 기본권을 찾아라」 부스를 운영한 법무부 청년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의 대학생은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제헌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준법문화 확산을 위해 범죄예방 및 법질서를 알리고 실천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으로 2008년 제1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8기수 3,573명 참여

또한 부모님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초등학생은 “퀴즈와 체험을 하면서 헌법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배우니 더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앞으로도 솔로몬로파크를 중심으로 참여형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법의식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 법페스티벌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	책임자	보호정책과장	김지수	(02-2110-3468)
		담당자	보호사무관	임성숙	(02-2110-3321)





【대전솔로몬로파크】 최고 규범 헌법 바스켓, 헌법 골든벨



【부산솔로몬로파크】 선거체험, 비즈로(LAW) 만드는 헌법의 가치



【광주솔로몬로파크】 헌법 퍼즐 맞추기, 제헌절 표어 만들기